

창의력의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 회 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요즘은 개방형 인간이 주목을 받는 시대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어서다. 개방형 인간의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는 예술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의학, 요리, 식물학, 천문학, 과학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창의력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의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 <모나리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제작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명암법을 이용해 풍경과 인물이 구별 짓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감을 보여주고 있다.

화면 왼쪽 배경에 있는 돌산과 작은 오솔길과 오른쪽 말라붙은 강바닥이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저수지와 연결을 확실하지 않다. 시간이나 계절이 명확하기 않는 풍경은 인간의 잠재성을 상징한다.

복잡한 자수로 수놓은 짙은 색 가운은 모나리자가 유부녀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그는 공식 초상화의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약사와 광대를 화실에 초청을 모델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웃고 있는 모습의 초상화는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제작하지 않았다.

화가에게 작품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년 동안에 수정하고 덧칠했지만 결국 완성하지는 못해 프랑스로 이주할 때 가지고 왔다. 한 때 <모나리자>는 나폴레옹 침실에 걸려 있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되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다.



<모나리자>-1503~1506년 경, 목판에 유채,
77*53,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향 피렌체에서 화가로 주목받지 못하자 밀라노로 향한다. 밀라노 루도비코의 지원으로 궁정화가가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예술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과학영역에 관련된 드로잉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 장치나 군사 설비에 관한 수많은 설계다. 이러한 드로잉은 오늘날까지 그의 명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밀라노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군주 루도비코의 의뢰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의 기마상을 제작하면서 인체의 비례, 해부학, 생리학을 연구하는 모임에 참가한다. 이 시기에 그는 <인체 형상

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대부터 유일하게 내려오는 비트루비우스의 이론과 자신의 인체 측정 연구를 비교했다.

로마 시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저서 <건축십서> 3권에서 완벽한 황금률을 가진 인체비율을 설명했다. 비트루비우스는 사각형과 원이라는 기하학적 도형 안에 팔과 다리를 펼쳤을 때 그 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완벽한 인체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배꼽이 원과 사각형 중심에 일치해야한다. 비트루비우스의 측정법은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 드로잉이 가장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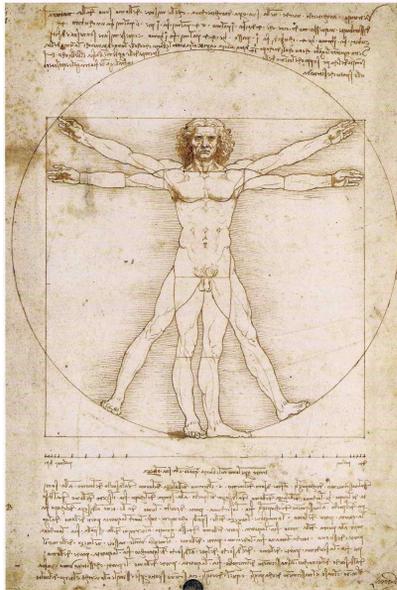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과 사각형을 서로 무리하게 연결하지 않았으며 인체를 실제로 측량한 경험을 가지고 비트루비우스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비트루비우스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기하학 도형에 맞추기 위해 팔과 다리를 길게 늘어야만 한다) 드로잉에서 인간과 원의 중심은 배꼽과 일치하지만 사각형

도형의 중심은 배꼽 아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의 황금비례를 완벽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측량을 통해 비트루비우스를 뛰어 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예술을 꽃피웠지만 루도비코의 실각으로 고향 피렌체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별로 환영 받지 못한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기술과 의뢰인하고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보다 예술에 있어서 뒤쳐지고 있었던 프랑스에서 궁정화가로 활동하면서 말년에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가 예술과 과학에 독창적인 창의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메모하는 습관 때문이었다. 그는 항상 작은 노트를 허리춤에 지니고 다녔다. 노트에는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시각을 메모했다.



<인체 비례>-1490년, 펜, 잉크, 수채,
344*245,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 소장